

터키 문학에 나타난 한국 전쟁

오 은경(동덕여대)

1. 들어가며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거의 반세기라는 시간이 흘렀다. 전후 세대가 기성 세대로 자리 잡기 시작한 한국에서 이제 한국 전쟁은 기억 속에 아득한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지구를 반 바퀴 돌아야 간신히 갈 수 있는 곳, 한국 전쟁을 자신의 역사 한 장면 한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전쟁 때 무려 만 여명에 가까운 병사를 파병하였던 터키이다. 아직도 터키의 구석구석에 한국 전쟁 때의 피비린내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이 살아있고, 그들의 체험은 기억으로, 그리고 문학 작품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렇다면 터키인들의 한국 전쟁 체험은 어떠한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만리 타국 땅으로 전쟁터에 던져진 병사들의 심정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어린 아들을 보낸 어머니, 약혼자를 떠나 보내야 했던 젊은 연인들, 생사를 알지 못한 채 흐르는 암울한 시간 속에서 가족들의 한국 전쟁에 대한 정서는 무엇이었을까?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한국전쟁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느끼는 그들과 만나면서 갖을 수밖에 없던 빗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청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전쟁문학을 검토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국전쟁문학론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작품의 발굴부터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서구에서 '전쟁문학'이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듯 터키에서도 전쟁 문학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다. 더구나 한국문학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필자의 논의가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쟁을 소재로 다룬 시, 소설, 희곡 등의 문학 작품을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전쟁 문학이라고 이해되는 반전 문학과, 전쟁 당시의 작가의 감성을 작품화한 전쟁서정문학, 그리고 휴머니즘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의 전쟁문학에 포함되는 전쟁동원문학의 범주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터키군의 한국전쟁 참전 배경과 터키 국내 여론의 형성.

터키는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 년 3 월 22 일 대독선언을 계기로 연합군 측에 가담하였다. 친서방 국가에 선회함으로써 자유주의진영의 철저한 반공국가가 된 것이다. 이러한 터키의 한국군 참전은 1950 년 6 월 28 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원조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된 이후,

7월 중순 유엔사무총장이 터키 지상군 파병을 요청하게 되고, 이를 터키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터키 정부의 한국전 파병은 터키 국내에서 대단한 파장을 일으켰다. 가장 심하게 반발하고 저항했던 세력은 극좌 계열인 '터키 평화 수호자 협회'였다. 이들은 국회에 파병을 무효화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화국 수립 이후부터 줄곧 집권당이었던 제 2 정당으로 밀려난 공화당(CHP)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터키가 한국에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소련의 보복 침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그 당시는 힘의 공백 상태에 있는 중동 지역에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터키의 한국전 파병 결정은 명실공히 대외적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체제로의 진입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반발은 한국전 파병이 휴머니즘의 실현 문제나 중동 지역에서 자국의 외교적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보다도, 터키 정부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료들간의 은밀한 결정으로 일을 추진한 것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야당이나 좌파 계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터키 정부의 파병 결정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실이 있었다. 당시 구소련의 팽창과 공산주의의 확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던 터키 정부가 자유주의진영의 보호 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한다는 것은 실로 터키의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언론은 터키 정부가 한국전 파병을 결정한 것은 터키의 안보를 담보로 제공받기 위한 것이며, 이는 미국의 군사적, 심지어 경제적 원조도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터키가 1951년 나토(NATO)에 가입함으로써 현실로 드러났다.

한편, 이렇게 구소련을 통한 공산주의를 경계하기 위해 조성되었던 반공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을 통해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 전쟁 참전 결정에 열광하였다. 심지어 당시 가장 규모가 큰 학생 조직인 "터키민족학생연합(Turkiye Milli Talebe Federasyonu)"에서는 "자유와 인류애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터키 민족에게 내려진 기회"라고 받아들여이기도 하였다. 모든 터키 국민은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슬람 세력도 이에 합류하였다. 종교부 장관 아흐멧 함디 악세키(Ahmet Hamdi Akseki)는 8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신실한 신앙심만이 공산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터키인의 한국전 참전은 곧 "성전(聖戰, cihad)이며, 한국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순교자"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터키 국민의 적극적 동조를 얻는 가운데 야당 및 좌파 계열 지식인들의 반발은 묻혀졌고 파병이 진행되었다. 이때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은 무려 지상군 1개 여단이나 되었다. 이 규모는 한국전에 참전한 16 개국 중 4 번째로 많은

숫자이며, 1950년 10월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1만 4천 9백 36명이 파병되었다. 터키 국민의 이러한 전쟁 참여 열기와 '파병'이라는 이산의 아픔, 그리고 참전군인들의 전쟁 체험은 고스란히 문학 작품 속에 녹아들었다.

3. 한국 전쟁 문학의 형성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이념전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동족간의 이념 차이에서 오는 분쟁이기 이전에 이미 국제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냉전체제의 화약고가 폭발한 것이었으며,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구소련의 야심과 미국을 둘러싼 자유진영의 긴장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유엔군이란 이름으로 16개국이라는 많은 국가의 군대가 동원되었다. 최근에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국가주의를 넘어선" 분석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쟁의 영향에 대한 분석도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다양한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 전쟁문학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이제 한국 국내의 한국전쟁문학만을 검토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각국에서 한국 전쟁이 문학에 미친 영향과 삶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더불어 이들의 한국전쟁문학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여하여 군우리 전투와 금양장리 전투 등 많은 활약을 보였던 터키의 경우, 한국전쟁에 대한 문학적인 대응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터키 문학에서 담론화 되지 못하고 있던 터키문학에 나타난 한국전쟁문학의 가능성을 전쟁동원문학, 전쟁서정문학, 반전문학의 범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 전쟁동원문학

한 민족이나 국가가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작가는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나 혹은 자발적인 애국심에 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이것은 물론 전쟁에 국민을 동원하고 군인들의 전쟁의욕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선전 선동문학으로서 전쟁동원문학이라 일컬어지며, 휴머니즘의 차원으로 제한되지 않을 때 넓은 의미로 전쟁 문학에 포함된다.

터키 문학에서 한국전쟁을 소재로 다룬 작품의 경우, 터키 병사의 파병을 정당화하고 군사들의 전쟁 사기를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작품이 대부분이다. 이때 한국전쟁은 사실적이기보다는 감상적으로 묘사되며, 심지어 '성전(聖戰, cihad)'으로 신화화되고, 이상화되며, 영웅화된다.

한국전쟁을 소재로 다룬 작품들을 장르별로 분류했을 때 시(詩)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것은 '시'라는 형식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전쟁 체험을 전시(War time) 당시에 글로 표현하고자 하는 군인들에게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다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 비해서 기성작가나 특별한 창작 기법을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쉽게 창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창작의 용이성이 '한국전쟁시'의 대중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전쟁참전을 독려하는 한국전쟁시 창작은 기존 작가층 보다는 학생, 지식인, 참전 군인 등 아마추어 작가들이 주도한다. '전선의 선봉적 역할을 하는 문학'의 역할은 현직 교사로 활동하던 에니세 칸데미르(Enise Kantemir)가 시집 "한국가(Kore Destani, 1954)"를 창작하면서 본격화된다. 이 작품에 대해 터키의 가장 저명한 문학 저널로 꼽히는 『터키어(Turk Dili)』는 25호(1954) 서평란에서 작품의 선동(propaganda)적 성향과 작가의 '선전'을 위한 창작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이것은 한국전쟁 당시 터키 문단이 문화인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어떻게 전쟁에 끌어들이느냐로 관심의 초점을 모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전체국민을 한국전쟁으로 끌어들이는데 많은 공헌을 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계몽을 위해 각 지방에 설립된 향토연구소(Koy Enstitusu)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전쟁 파병이 결정된 직후 많은 향토연구소에서는 한국전쟁참전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독려문학을 창작한다. 한국전쟁기간인 1951년 듀즈이치 향토연구소(Duzici Koy Enstitusu)의 무스타파 악수길(Mustafa Aksugil)과 유수프 규르오울루(Yusuf Guroglu)는 『듀즈이치가 한국영웅들에게 보내는 인사말(Kore Kahramanlarina Duzici'nden Selamlar)』이란 시집을 발간한다. 이들은 서문에서 '친애하는 터키 참전 용사들의 자유세계 수호 투쟁과 전 세계에 휘날린 대(大)터키인의 긍지를 기념하고,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창작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많은 지식인들은 전쟁 동원 문학의 형태로 한국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이것은 지식인 특유의 대중을 선도하려는 자발적 계몽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선전(propaganda)이든, 선동(agitation)이든 터키인들에게 있어 한국전쟁은 전인류적 차원의 휴머니즘으로 내면화되었으므로, 한국전쟁문학을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작가층은 폭넓게 확대되어 갔다. 현직교사나 향토연구소의 연구생과 같은 비제도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쟁독려문학의 창작은, 구비문학 시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민중시인 아숙(Asik)들의 활약에 의해 더욱 더 가속화되어갔다.

민중시인 아숙(Asik)들이 터키 고유의 독특한 전통적 구전시 형식인 '데스탄(Destan)'을 계승함에 있어 한국전쟁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민중시인 아숙(Asik)들은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구전시 계승자이며,

전쟁이나 화재, 가뭄, 가난 등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나 그 지방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데스탄(Destan)을 지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였다. 이때 데스탄은 해학성을 띠기도 하며, 형식에 있어서는 코쉬마(Kosma)라는 6+5 나 4+4+3 음절의 4 절 연시의 형태를 띠게 된다. 한국전쟁 당시 그 작품의 수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의 활약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중시인의 데스탄에서는 각 지방에 따라 다양한 모티프가 사용되는데, 다음은 데스탄의 한 예이다.

성(聖) 무하메트의 가르침이 남겼도다/ 조국애가 너를 한국에 보냈구나./

정의를 실현하려 목숨을 바쳤구나/ 강철도 녹이는 우리 용맹한 터키 병사들이여//

순교자가 되버린 너,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너의 붉은 피는 한국 산천을 물들였다/

조국이여 어찌 그 은혜를 잊을텐가/강철도 녹이는 우리 용맹한 터키 병사들이여//

한국 산천에 퍼진 네 목소릴 들었네/ 악독 공산당 피 벌컥벌컥 들이켜라/

언젠가 모스크바 눈깔을 빼주었지/강철도 녹이는 우리 용맹한 터키 병사들이여// (...이하 생략)

데스탄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오스만제국의 정복자 파티히(Fatih)나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파샤 등과 같은 역사적인 영웅들과 한국전쟁 총괄 지휘관이었던 타흐신 야즈즈(Tahsin Yazici)나 제랄 도라(Ceral Dora) 등 한국전쟁 지휘관들이 동일시되며, 한국전은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한 성전(cihad)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참전군의 영웅화와 한국전쟁의 신화화는 데스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적 요소이다. 한편 이러한 전통적 구전시 데스탄은 전쟁을 소재화하고 영웅적 요소를 많이 가미했다는 점에서 현대 시인들은 전쟁을 묘사하는데 적합한 시 형식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들은 현대적으로 변용된 데스탄의 형태를 차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지식인, 학생을 비롯한 아마추어 작가들이 대중에게 익숙한 형식에 기대어 자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려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민중시인 외에 직접적인 전쟁 체험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전시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참전용사들은 참전 군인들의 사기 충전에 기여하고자 작품을 쓴다. 전쟁에 참여한 장교들은 전투의 긴박한 상황을 시로 묘사해내고, 전사한 참전군들을 추모하며, 공산주의에 대항함으로써 인류애를 실현하는데 기여한 터키인의 용맹을 찬양한다.

한편, 터키 문단에서 활약하는 기성 시인들은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전쟁동원문학 창작에 합류한다. 이들은 1980 년대가 되어서야 한국전쟁을 소재로 다룬다. 오우즈 카즘 아톡(Oguz Kazim Atok)의 「부산에 잠들다(Pusan'da Yatiyorum)」, 수앗 살리 아슬란(Suat Salih Aslan)의 「한국에서 전사한 이들에게(Kore Sehitlerine)」, 오스만 아틸라(Osman Attila)의 「신문에서 네 사진을 보았네(Gazetede Cikmis Buldum Resmini)」 등은 기성 시인들의 전후 한국전쟁에 대한 체험과 소감을 보여주는 시들이다. 이와 더불어 에딕 아엘(Edip Ayel)의 「한국전쟁순교자(Kore Sehitleri)」는 프랑스 시에서 볼 수 있는 론델 형식으로 쓰여진 가장 많이 알려진 시이기도 하다.

기성 작가들 역시 대부분은 한국전쟁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고, 터키군인들의 용맹성을 기리는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전쟁동원문학 성격으로서의 한국전쟁시는 □철저한 반공의식 고취, □중양아시아에서 기원한 한국과의 형제애 회복, □인류에 실현, □알라신이 명한 성전으로서 한국전쟁의 의미, □ 터키군의 용맹성에 대한 찬사, ⑥조국애 및 전우애 고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시를 제외한 다른 장르에서는 전쟁독려문학의 성격으로서의 창작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전쟁소재 작품 자체가 전반적으로 시에 치중해 있으며, 1980 년대 이후 기성작가들이 한국전쟁을 소재로 다루기 전까지 다른 장르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다루어졌다해도 거의 문학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단편적이고 작품만이 한 두 편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소설이나 희곡 등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창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과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장르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쟁 독려에 선봉적 역할을 했던 계층은 대부분 아마추어 작가들이며, 기성작가들은 전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한국전쟁에 대해 발설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쟁 발발 즉시 터키군의 참전을 정당화하고 국민적 차원의 동화를 끌어내고자 곧바로 창작에 착수해야 했던 당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3.2. 전쟁서정문학

'전쟁문학'을 좁은 의미로 휴머니즘의 문제를 탐구하는 문학이라고 정의했을 때 반전문학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로 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간접화 또는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쟁서정문학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휴머니즘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전쟁서정문학은 선전이나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동원문학보다는 보다 높은 문학성을 지닐 수 있다. 전쟁을 독려하는 선전선동문학이 전쟁의 동원이나 승전을 위하고, 전쟁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쓰여지는 것에 비해 전쟁서정문학은 전쟁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탐구하고, 전쟁 그 자체보다는 전쟁이라는 상황 안에서의 인간을 탐구하는데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

터키의 한국전쟁문학은 전쟁을 독려하기 위한 전쟁동원문학으로서 시(詩)가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수를 차지한다. 그에 비해서 전쟁서정문학의 경우는 모든 장르에 조금씩 분산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전쟁문학 자체가 현저하게 시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를 제외한 나머지 장르는 그 수로 미루어 볼 때 많은 작품은 아니지만, 전쟁에 참전했던 젊은 지식인이나 작가들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서정문학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전쟁서정시는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작가의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된다. 전쟁이라는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작가는 전쟁이라는 상황 속의 인간적 의미를 감정적으로 노래하게 된다. 이때 그 소재는 인간의 내면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군대 및 병영 생활에 관한 것, 자연이나 사물에 관한 것 등이 될 수 있다.

터키의 한국전쟁문학에서 전쟁서정시는 보편적으로 참전군인들에 의해 가장 많이 쓰여졌다. 대체로 작가는 격렬한 전투를 마친 이후 전장의 절박성이 어느 정도 사그러들고 난 후이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투를 앞둔 긴장과 공포의 상황에서 작가 자신의 감성을 가장 잘 드러내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인이면서 한국전쟁 참전군이었던 케말 에르투르크(Kemal Erturk)의 『한국의 새벽녘에서(1952)』이다. 이 시집은 술탄 아흐멧 남성예술원(Sultan Ahmet Erkek Sanat Enstitüsü)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이 시집에서 작가는 타국 땅 한국산천에서 보내는 심정,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전장에서 전우를 잃었을 때의 슬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들의 휴가지였던 일본에서 병원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일본인 간호사 등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한편, 시에 비해 극소수의 작품만이 배출된 소설 장르에서는 주로 전사의 이산 가족이 등장한다. 머나먼 타국 땅인 한국으로, 더구나 전쟁터로 아들이나, 남편, 애인을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편지는 떨어져 있는 그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따라서 편지는 많은 작품에서 사건의 발단으로 인용된다. 이러한 가족이나 연인사이의 이산의 아픔을 주제로 다룬 작품은 전쟁 당시 국민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호응을 얻는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한국 북극성(Kore'de Kutup Yildiz)』과 『한국에 남겨진연인(Kore'deki Sevgili)』이다. 『한국 북극성(Kore'de Kutup Yildiz)』은 한국전쟁 당시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파룩 규벤투르크(Faruk Guventurk)의 작품이다. 소설은 주인공 샤인(Sahin)이 여자친구 썸라(Semra)의 오빠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 한국전쟁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오빠가 한국전쟁에 파병되었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커다란 슬픔에 빠진 그녀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에 가게된 주인공 샤인(Sahin)은 한국의 실정과 자신의 모든 체험을 편지로 낱낱이 전해온다. 편지는 전쟁터인 한국과 남겨진 가족들이 있는 터키를 이어주는 유일한 출구이자 통로가 된다. 이로써 썸라도 주인공 샤인의 눈을 통해 전쟁을 체험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낄 수 있게된다. 전반적으로는 작품에 흐르는 것은 샤인과 썸라의 사랑이야기이지만 편지를 통해 전해지는

한국에 대한 소개와 전시 상황 설명은 작품의 기록문학적인 성향을 드러내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랑을 주제로 한 또 하나의 소설은 『한국에 남겨진 연인(Kore'deki Sevgili)』이다. 이 소설은 터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일간지 중의 하나인 휴리엣(Hurriyet) 신문에 1953년 11월 27일부터 1954년 1월 9일까지 42일간 연재되었다. 작가는 오스만 일ahami 빌게르(Osman İlhami Bilger)로 현재 그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 소설 역시 익명의 편지 한 장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연극배우인 누르한(Nurhan)은 무대에 오르기 위해 화장을 다듬고 있을 때 한국으로부터 날아온 편지 한 장을 받는다. 이것으로 누르한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편지는 고향인 터키에 편지를 쓸만한 가족이 한 사람도 남겨져 있지 않은 한 병사에게서 온 것이다. 편지는 계속되고, 거기에는 익명의 병사의 외로움이 묻어있으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 이로써 어느 날 문득 누르한은 그 익명의 병사를 사랑하게 됨을 느낀다.

이러한 전쟁서정문학의 창작은 한국과 터키라는 물리적 거리로 떨어진 이산의 아픔과 전쟁과 너무도 밀착해 있을 수밖에 없는 참전군인들을 터키의 가족들과 연결시킴으로써 물리적 공간을 초월한 전쟁의 국민적 차원의 공유를 끌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도 하다..

전쟁서정문학 작품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이와 같이 전쟁이라는 상황 설정을 기반으로 하는 가운데, 그것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인간에 대한 탐구로 일관하고 있다. 시에는 참전군들의 고독이나 두려움, 고향에 대한 향수, 전우를 잃은 슬픔 등과 같은 전시에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이 주요 테마가 된다. 이에 비해 소설에서는 한국과 터키로 떨어진 전쟁 이산과 남녀의 사랑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때 편지는 이들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끈이며,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출구가 된다. 동시에 편지라는 수단을 통해 한국이라는 전쟁 상황이 터키에 보도된다. 이러한 편지의 기능이 부가됨으로써 전쟁서정문학은 어느 정도 기록문학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게되며, 일정부분 선전문학으로서의 목적성도 띠게 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전쟁서정문학 역시 참전군인들의 휴머니즘에 대한 호소와 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공산세력의 철저한 배격을 주장함으로써 저변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국민적 동화를 요구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선전선동문학과 같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것은 아니며, 사랑이나 고독과 같은 서정적 주제에 기반하고 있기에 전쟁동원문학과는 구별된다.

3.3. 반전문학

전쟁을 독려하기 위한 전쟁문학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전쟁의 영웅화 혹은 이상화에서 벗어나 전쟁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휴머니티 탐구의 문학'으로,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반대하는 소위 '반전문학'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에는 반전문학이 전장과 감옥, 정치 수용소에 대한 픽션뿐만 아니라 다규멘타리, 르포르따쥐, 레지스탕스 등의 문학을 포함하며 그의 독특한 유형으로는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가 귀향하여 겪는 '귀향소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터키 한국전쟁 문학의 경우 반전문학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다. 전쟁 발발 직후와 전시에는 주로 아마추어 작가층에 의해 한국전쟁문학이 창작되었으며, 대부분은 전쟁동원문학이었다. 그때 대부분의 기존 작가들은 입을 다물었다. 작가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이 종식되고도 한참 이후인 1980대 이후이다. 정부에 의한 신체적, 감정적 전쟁 참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어쩌면 그것 자체가 시위 같기도 했다. 멘데레스(Menderes) 정권과 군부체제가 물러가고 민간대통령인 외잘(Ozal) 대통령이 취임한 이 후에야 이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한국전쟁과 터키군의 파병을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거의 모든 작가들이 침묵으로 일관할 때 유일하게 과감하고도 날카로운 비수의 펜대를 휘두른 시인이 있었다. 바로 터키의 사회주의자 시인으로 잘 알려진 나즘 히크멧(Nazim Hikmet)이었다. 절대적으로 많은 시가 전쟁동원시로 쓰여진 것이 비해 나즘 히크멧을 비롯한 극소수 시인들은 터키의 한국전 파병을 감행한 당시 멘데레스 정권을 맹렬히 공격한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한국민요(Kore Turkusu)」, 「한국에서 숨진 어느 예비 장교가 멘데레스에게 하고 싶었던 말 (Kore'de Olen Bir Yedek Subayimizin Menderes'e Soyledikleri)」을 들 수 있다. 「낙후되는 터키와 멘데레스에게 보내는 충고 한마디(Gerileyen Turkiye yahut Adnan Menderes'e Ogutler)」에서 보여주는 시인의 공격성은 미국의 앞잡이가 되고자 자국의 수많은 젊은 청년을 희생시킨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한다. 나즘 히크멧은 그 후 결국 반체제 운동으로 인해 국외로 추방당해 당시 소련으로 귀화하며, 이러한 반전시가 터키 문단에 소개된 것도 그로부터 훨씬 이후인 1987년 『나즘 히크멧 시 전집』이 출판된 이후였다.

한국전 파병을 비판하는 소설은 아틸라 일한(Attila İlhan)의 『상처 짓이기기(Yaraya Tuz Basmak, 1982)』이다. 아틸라 일한은 터키 현대 소설에서 리얼리즘 소설로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작가이다. 소설에서는 군인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 이상주의자 장교인 데미르(Demir) 대위가 한국전쟁이 자원하여 큰 공적을 남기고 귀향하여 겪는 사회 부적응과 전쟁후유증이 주요 테마가 된다. 데미르 대위는 전투에서 큰 공적을 세우지만 크게 부상당하여, 일본으로 수송된다. 오랜 시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데미르는 회복되어 고국에 돌아오지만 성적 불구자가 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에서 내려진 훈장도 그에게는 삶을 회복시킬 수 없다. 한편 가슴속에 깊이 박힌 반공의식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을 뿐이다. 이때 한국전쟁참전 관련 기사를 취재를 담당하던 여기자 유밋(Umit)과 사랑을 나누게 된다. 유밋은 좌익으로

알려진 지식인이다. 둘간의 사랑으로 데미르는 많은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결국 터키의 내부 상황이 혼란으로 치달으면서 '혁명'에 대한 불안감은 유밋의 전쟁 후유증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두 사람의 사랑도, 미래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겨진 채 소설은 끝을 맺는다.

작가는 소설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전쟁 상황을 소개하고, 터키 내부의 혼란스런 정치적 분열과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파괴된 한 개인의 삶은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으로 파병의 오류를 지적하며, 휴머니즘을 강조한다.

희곡으로는 휴머니즘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쟁 자체를 하나의 '게임'으로 묘사하고 있는 『벼이삭 푸르러질 때(Pirincler Yeserecek, 1969)』를 들 수 있다. 작가 세냃 베이스 외르넥(Sedat Veyis Ornek)은 터키에서 인류학 교수를 지냈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 한국전쟁참전 체험을 희곡으로 작품화하였다. 『벼이삭 푸르러질 때(Pirincler Yeserecek)』는 단막극으로 1969-70년에 앙카라 극단에 의해서 여러 차례 무대에 올려진 바 있다. 작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의 노예가 되고 희생양이 되어가는지를 특별히 한국의 순박한 여성이 매춘부로 전락해 가는 삶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작가는 당시 이 작품이 상연될 당시 작품에 대한 견해를 아래와 같이 전한다

"이 작품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 희생양은 많겠지만 여기서는 군인과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영문도 모른 채 전쟁에 던져졌고, 전쟁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서로 싸우고 있기도 하지요... 여인은 오직 단 하나뿐인 피붙이 아이에게만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어 가는 그 아이를 살리려 애쓰기도 하구요. 군인은 그 여인을 착취하는 파렴치한 인물이지요. 이렇게 전쟁이라는 거대한 '연극'에 의해 한사람 한사람의 연극도 시작되고, 끝나지요."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전쟁이라는 강대국의 게임이 무고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덫이 되어 삶을 파괴하는지를 고발한다. 유엔군 남성과 포주가 되어 돈을 뜯어가고, 여성을 학대하는 한국인 남성을 통해 남성의 전시 가해자 역할에 주목한다. 휴머니즘 회복에 기대고 있는 작가의식은 한국전쟁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작품을 승화시키며, 전쟁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국은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근원일 수 밖에 없음을 환기시킨다.

이렇게 반전문학은 시, 소설, 희곡 및 모든 장르가 기성 작가층에 의해 쓰여지면서 전쟁 내부에서의 인간에 대한 성찰을 다루고 있어 문학적 가치 또한 다른 작품에 비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세냃 베이스 외르넥의 희곡이 1969년 발표되었고, 나머지 작품이 발표된 것도 1980년대

이후로 기성 작가들의 전쟁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 것 자체가 최근의 일이라는 점이다. 전쟁 당시에는 반전문학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것은 적극적인 파병 반대와 한국전에 대한 반발은 작가들의 생존권의 박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작품의 수량으로 보아서도 한국전쟁 문학에서 반전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차원이다.

4. 결론

한국전쟁에 파병이라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터키에서는 한국전쟁문학이 형성되었다. 우선적으로 전쟁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 전국민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인류의 적인 공산주의와 대응하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으로 전쟁 참여를 정당화하며, 전쟁을 선전 선동하는 전쟁동원문학이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가장 먼저 현직교사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이 앞장을 섰으며 각 지방의 민중시인 아숙들(Asik)이 터키의 고유한 시 전통인 데스탄(Destan)을 창작하는 것으로 더욱 더 힘을 실어주었다. 전쟁동원문학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시 장르로서, 이는 시 장르가 지는 특성상 짧은 시간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도 창작할 수 있다는 이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역시 대다수의 전쟁독려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일부 지식인 및 참전군인 등의 아마추어 작가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더욱 더 장르상 적합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 처한 인간의 내면과 서정을 형상화한 전쟁서정문학의 경우 역시 일정부분 기록문학적 기능과 전쟁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표출된 서정성 속에 어느 정도 휴머니즘적 차원도 내재되어 있으며, 전쟁에 처한 참전군들의 전쟁에 대한 공포나 고향에 대한 향수, 고독 등이 묘사되어 있어, 반전문학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직접적인 반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파병이 진행되던 당시 반전을 주장하는 문학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터키 한국전쟁문학의 형성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이다. 소련의 공산화 위협과 맞닥뜨려 있는 터키가 반공주의를 국시로 내걸고 자유진영 국가로의 진입을 전세계에 표방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고자 했던 것은 전 국민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에의 적극적인 개입에 동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전쟁문학이 대부분 아마추어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고, 대부분의 기존 작가들은 전쟁에 대한 찬반의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한국전쟁파병에 대한 묵시적 반발을 표현하기도 하였다는 것에서 모든 국민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파병에 대한 적극적인 반발 및 반대는 반공을 국시로 내건 당시의 상황과 정권의 경직성으로 볼 때 이것은 바로 생존권의 박탈로 연결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문학에 대한 재평가가 서서히 고개를 들며 반전 문학의 형태로 창작 및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물론 그 중에는 한국전쟁 당시 창작되었으나 출판이 금지되어 80년대 후반에서야 출판이 된 작품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한국전쟁문학의 창작은 시기상으로도 아주 늦게 이루어졌을 뿐더러 작품의 수로 미루어 볼 때도 극히 미미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때 반전문학은 전쟁동원문학이 압도적으로 시에 치중해 있는 것에 비해 시, 소설, 희곡 등의 장르로 창작되었으며, 전쟁의 무의미성을 고발하고, 인간의 실존을 탐구하며, 과병의 형태로 젊은이들의 삶을 희생시킨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한편 전쟁동원문학이나 전쟁서정문학, 반전문학 등에서 모두 일정부분 기록문학적 특성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기록문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전쟁회고록은 이 본논문에 다루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그것은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며, 참전군들의 눈을 통해 본 한국과 한국전쟁에 대한 고찰을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논문은 한국전쟁에 대해 과병이라는 형태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였으며, 모든 국민의 문학적 대응을 얻어낸 한국전쟁이 문학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드러났는가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므로 각 장르별 분석 및 연구 또한 후속 작업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아쉽게도 전쟁문학으로서 높은 연구 가치가 있는 한국전쟁문학이 아직 터키 문학에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담론화 되지 못하였으므로 필자의 이 논문이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것과 더불어 국내 한국전쟁문학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한국전쟁문학을 고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